

동아시아 POPs 자료 공유 워크숍

동아시아 지역의 POPs 측정분석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11월 2-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다.

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워크숍에 UNEP, AMAP 등 국제기구 및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20여명의 국내외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POPs(Persistent Organic Pollutants)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, 다이옥신, PCBs 등 환경 중 잔류성, 장거리 이동성, 생물축적성이 큰 물질이 속한다.

워크숍은 2005년 12월 개최된 제1차 워크숍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생산되는 POPs 측정분석 자료의 취합 및 활용 방안, POPs 모니터링에 대한 국가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.

제1차 워크숍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POPs 측정분석 자료의 취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차기 워크숍에서 표준화된 자료 취합양식을 검토해 확정기로 결정한 바 있어 2006년 워크숍에서 POPs 측정분석 자료 취합을 위한 표준양식, 동아시아 지역 POPs 모니터링 정보 웹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환경부 관계자는 “워크숍 개최를 통해 향후 동아시아 지역 POPs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”이라며 “2007년 초 한국이 스톡홀름협약 비준으로 협약 당사국이 되면 POPs 모니터링 및 정보 웹 구축 사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 <김지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6/11/01>